한일협력의 모색 : 구동존이의 맥락에서

송화섭(KIDA)

1. 한일관계의 진단 및 발전 방안

(1) 한일관계의 진단

○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다. 한일관계가 왜 나쁜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 한일관계가 왜 나쁜지 그 이유를 개별적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은 한일 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통치 이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왜 아직도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중장기적인 화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일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방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둘째,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이 반드시 두 나라가 “같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해 한일 양국민이 반드시 동일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한일 양국 국민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자신과 같은 사고를 하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국과 일본

*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표자료, 제주, 2019년 5월 29-31일,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 서로 다른 판단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일 간의 같음(동질성)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면,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고, 이러한 실망감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며, 심할 경우 “분노”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일본인들이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 한국에서의 반일감정이나 일본에서의 혐한감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반일감정은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 내면에는 한반도에 대해 식민지통치를 했다면 일본이 이를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인의 판단과 기준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인식과 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인 재생산되는 것이다.

○ 반면에 일본인들은 일본의 기준과 합리성에 따라 한국인들의 인식과 행동을 기대하게 되는데,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인 생각하는 예상하는 행동과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한일관계 발전 방안

○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상대방이 다르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차분히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일 간에 산적된 많은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히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해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국민감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피하고,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한일협력을 위해 필요한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표자료, 제주, 2019년 5월 29-31일,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 한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문제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첫번째 특징, 즉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상호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을 “같음”과 “다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전면적으로 일치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문제로 갈등을 안고 있었지만,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나름대로 한일 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한일안보협력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이해와 인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동일한 위협을 느끼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일본이 동참하지 않는 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일본도 한국과 같을 것이라는 “같음”의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표자료, 제주, 2019년 5월 29-31일,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 최근 일본의 아베 수상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있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 위협에 대한 한일 안보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

○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한일 간에는 상당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군사적 투명성이 낮다든가 활발한 해양활동, 항공활동을 통해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그 대처방법에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한일 간에 안보 군사 협력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한일 안보 군사협력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시키자는 입장이었다.

○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해 한국이 중국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 중국 편향적인 것이 아닌라 안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다름”을 보인 것이다.

○ 한편 작년부터 일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협력”과 “견제”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 일중간에는 해상,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공중연락메카니즘을 합의하였다.

○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응방법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었지만 일중관계의 변화로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일중관계를 바탕으로 한중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표자료, 제주, 2019년 5월 29-31일,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